

대구 시민의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선호도에 관한 연구

엄봉훈 · 오승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 *예전조경

Preferences for Experiencing activities of Daegu City Residents towards Green Tourism

Boong-Hoon Eom · Seung-Hyun Oh*

Dept of Landscape Arch., Catholic Univ. of Daegu

*Yejeon Landscape Architecture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ity residents' preference to experiencing activities for Green Tourism.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fall, 2006. The sum of 515 copies was analyzed. Residents of Daegu city preferred 'health/leports experience' and 'traditional food experience', among theme experiential activities. While present providing experience programs are rural-life experiences, which are convenient for provider aspect. By the result of cross-table analysi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gender & age. Men preferred 'health/leports experience', while women preferred 'traditional food experience'. The mean values of preference by 14 experiencing activities showed high at 'health experience', 'traditional food experience', 'leports experience', which represents health & wellbeing trends. By the result of t-test & ANOVA, there also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gender & age. Espec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by age group. Three factors were categorized. 'traditional/wellbeing/health experience', 'nature-play experience' and 'life-culture experience' were those.

Key words : Green tourism, City residents' preference, Experiencing activities

1. 서론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여가시간의 증대와 체류형, 체험형 관광의 확대 및 여가계층 확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민의 관광·휴양의 경향은 핵가족화 됨으로써 가족 간의 친목도모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중심의 여가활동이 증가되고, 기존의 관광지나 리조트에서 느끼는 인공적인 휴양환경과 번잡함을 피해 농촌에서의 휴식과 자녀를 위한 자연환경 체험 및 환경교육 차원에서의 이용행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오승현·엄봉훈, 2007).

녹색관광이라고 번역되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의 개념은 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촌의 풍부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농림부, 2001)이라 정의된다. 유사개념으로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 농촌관광(rural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대안 관광(alternative tourism) 혹은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등이 있다(엄봉훈, 2006 재인용).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는 첫째, 개념소개와 이론 고찰 및 정책도입을 위한 연구들, 둘째, 외국사례 소개, 셋째 농촌지역 활성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의 그린투어리즘 연구, 넷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도시민들의 태도, 의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 수요 측면적 연구들, 다섯째, 그린투어리즘 공급자 입장에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들로 유형화 할 수 있다(엄봉훈, 2006). 본 연구는 이들 유형 중 도시민들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태도, 의식 분석 등 수요측면의 연구들 중 체험활동 선호도에 대한 연구들과, 공급자 입

Corresponding author : Eom, Boong Hoon
Tel : 053-850-3189
E-mail : bheom@cu.ac.kr

장에서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린투어리즘의 수요측면인 이용자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는 김범수·이주희(1997)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의식 조사연구를 필두로, 2000년대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주 이용계층인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전반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들이 이루어지다가, (김용근 외, 2001, 홍성권·김성일, 2002 등) 본 연구주제인 농촌관광 및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선호도를 포함한 마케팅 기법적 분석에 대한 연구들로 세분화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농촌생활연구소(2003a)의 녹색관광 실태 및 선호도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보고된 조록환 외(2003)의 인터넷 이용자의 녹색관광 요구분석에서는 농촌관광 활동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녹색관광 종류, 체류시간, 등을 조사 보고하였는데, 선호도가 높은 활동으로는 자연과 즐기며, 휴양휴식을 취하며, 재미있고 뜻있는 체험학습 활동 등이 선택되었으며, 일상적인 농사(영농)체험(예: 모내기, 가축 기르기, 나무심기 등) 및 곤충채집 활동 등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농림부(2004)에서 발간된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도 조사 보고서’에서 체험활동 선호와 관련된 결과로는 도시민들이 주로 시골길, 강변 산책 등 전원감상(22.2%), 동행자와 친목도모(21.2%), 야영, 하이킹 등 자연탐방(14.2%), 신선한 먹거리 구입(7.5%), 농촌생활체험(6.1%), 자연산물 채취(5.7%)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함석중·김숙희(2005)는 그린투어리즘의 수요 주체자인 도시민의 관광태도 및 그린투어리즘의 지향성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를 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그린투어리즘 태도에 자연지향, 문화지향, 건강지향 인자가 작용함을 검증하고, 인구학적, 사회계층적 변인에 따라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지향이 달라지므로, 농촌관광 개발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계획에 있어서 도시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녹색체험활동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연구들로는, 엄서호·노영희(2001)가 양평군의 그린투어리즘 녹색체험 종류를 환경체험, 농사체험, 농촌문화체험, 농산물체험, 자연체험 등으로 분류하고, 녹색체험 수요를 그 요구정도에 따라 가족 중심의 자연체험형 집단, 친지/친구 중심의 친교휴양형 집단 및 단체 중심의 생태교육형 집단 등 3가지 유형의 표적시장에 맞는 녹색체험 상품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김상윤(2001)은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을 자연체험, 임업체험, 스포츠, 레저 체험

등으로 소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에코투어리즘 에스코터’ 및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 및 그린투어리즘 코디네이터’ 등 전문해설 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해설인력의 양성 관리방안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유승우 외(2003)는 농촌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또한 농촌생활연구소(2003b)는 농촌전통 테마마을의 그린투어리즘 자원을 이용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권용대·홍종숙(2003)은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행하는 중, 충남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 현황과 체험활동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송문갑(2004)은 그린투어리즘 제공자인 농업생산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생산자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함을 제안한 바 있고, 송재호·이성은(2005)은 구조 모델 구축과 적용을 통한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 수요측면의 선호도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연구들이 지금까지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체험활동들이 그 종류와 유형에 제각각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내용 및 유형분류 작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영남지역의 거점도시인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선호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녹색체험마을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농림부 농촌관광 포털 ‘그린투어’사이트(www.greentour.or.kr)에는 대구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경북 지역의 체험마을이 43개소(13%), 대구시가 3개소(1%) 등재되어 있어, 강원도 49개소(15%)에 이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16종 19개의 이용시설만 등재되어 있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이용시설 등재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엄봉훈, 2006). 이는 아직 대구경북 지역의 그린투어리즘 체험마을들이 체험프로그램 제공이라는 마케팅 측면의 노력과 체제정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과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대구·경북 지역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요측면인 도시민의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선호도를 공급측면의 자료인 대구·경북 지역 체험마을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대구·경북 지역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

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먼저 대구·경북 지역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농림부 농촌관광 포털 ‘그린투어’사이트(www.greentour.or.kr)에 등재된 대구·경북 지역 체험마을 60개(대구 3개 마을, 경북 57개 마을)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현황을 집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표본 집단은 대구시의 구별 인구수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자료수(600부)를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배분하였다. 배분된 지역별로 할당된 성인 남녀 20여명을 조사원으로, 조사원 자신과 주위 지인들에게 구별로 배분된 수의 설문지 총 600부를 배포하여 560부를 회수 하였다. 회수율은 93.4%였고, 이중 45부는 기계 오류로 집계에서 제외하고 총 515부를 자료집계에 이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두 달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신상사항과 체험활동 선호도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응답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결혼유무, 직업, 학력, 자녀의 수, 월평균 소득 등의 7가지 신상사항 관련 질문을 설정하였다.

체험활동 선호도조사 부문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그린투어리즘의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농림부에서 운영 중인 농산어촌 그린투어리즘 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에 등재된 테마별 체험활동 5가지, 즉 ‘농산어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자연생태체험’, ‘건강/레포츠/체험’ 등 5가지¹⁾로 나누어 참가하고 싶은 테마별 체험활동 유형을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별 그린투어리즘의 체험활동 종류를 ‘농촌생활체험’, ‘어촌생활체험’, ‘산촌생활체험’, ‘전통문화 체험학습’, ‘전래놀이 체험’, ‘전통농가 생활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음식 먹기’, ‘지역(농특산물)축제 참여’, ‘자연생태 관찰’, ‘자연생태 학습’, ‘건강체험’, ‘레포츠체험’, ‘기타체험’ 등 14가지 개별 체험활동 프로그램²⁾으로 선정하고 각각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

호도를 5점 리커트 척도(좋아하고 하고 싶다 5점, 보통 3점, 좋아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다 1점)로 평가하게 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2.0K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테마별 체험활동 선호도는 우선순위별로 가중합평균치를 구하였으며, 이를 신상자료들과 교차분석을 행하여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14개 체험활동별 선호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균을 산출하고, 성별과 그린투어리즘 경험유무와 체험활동 선호도의 관계는 독립표본 t-검정을, 연령대(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등 5 집단)와 체험활동선호도의 분석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으며 duncan의 사후검정으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14가지 체험활동 선호도 자료의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체험활동의 범주화(categorize)를 통한 유형분류 방안을 고찰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식에 의해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회전시킨 각 변수의 인자부하값을 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구·경북 체험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인 대구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린투어리즘 체험마을들이 분포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체험마을들은 2008년 기준으로, 대구지역 3개 마을, 경북 지역 57개 마을 등 총 60개 마을이 등재되어 있다. 농림부 농촌관광 포털 ‘그린투어’사이트(www.greentour.or.kr)에 운영 중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마을이 33개 마을(55%), 연계된 마을자체 홈페이지에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마을이 9개 마을(15%), 기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15개 마을(25%) 등 전체 60개 마을 중 57개 마을(95%)에서 소개되거나 운영 중인 자료들을 집계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체험마을들에서 운영 중인 5가지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농산어촌생활체험 프로그램이 31종으로 가장 많으며, 전통문화체험이 13종으로 그 다음으로 많

고, 전통음식 체험(10종), 자연생태 체험(7종), 및 건강/레포츠/기타 체험(6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 기준 전국 체험마을을 자료에서 농산어촌생활체험 프로그램 29종, 전통문화체험 18종, 전통음식 체험 12종, 자연생태 체험 11종, 건강/레포츠/기타 체험 9종로 나타났던 것(엄봉훈, 2006)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농산어촌생활체험 프로그램은 다소 늘어난 것인데, 이는 농작물 수확 체험의 작물 종류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대구·경북 지역 체험마을에서 운영 중인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공급자 입장에서 제공하기 좋은 프로그램들, 즉 작물 수확 등 영농체험과 전통문화, 전통음식 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응답자 신상사항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시민의 구성은 남녀 515명 중, 여자가 338명으로 전체 65.6%를 차지했고, 남자가 177명으로 34.4%로 여자 그룹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대가 144명(27.9%)으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고, 이어서 40대가 137명(26.6%)으로 20대와 비슷한 구성비를 보였으며, 30대와 50대 이상, 10대가 각 98명(19.1%)과 91명(17.7%), 45명(8.7%)으로 집계되었다.

성별에 따른 연령분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직업별 구성은 주부와 학생이 각 182명과 138명으로 전체의 35.3%,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무직, 관리직, 자영업 등 직장인이 29.3%를 차지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이 245명(4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대학생 115명(22.3%), 고졸 16.7%, 중졸이하 7.4%, 대학원 이상 6.0%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설문에서 가구당 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질문한 관계로 응답자의 반 이상이 주부와 학생이었으므로 200만원 이

하가 242명(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200-300만원 이하, 300-400만원 이하, 400-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이 각각 21.7%, 15.3%, 7.4%, 6.6%를 차지했다.

3.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그린투어리즘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건강/레포츠/기타체험'과 '전통음식체험'이 각각 24.8%, 2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전통문화체험'(19.1%), '자연생태체험'(18.2%), '농산어촌생활체험'(14.8%)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1) 이는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현재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자료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이용자가 선호하는 체험활동들은 현재 많이 운영되고 있는 농산어촌생활 체험들이 아니라, 건강/웰빙 추세를 반영하는 건강/레포츠 체험과 전통음식 체험이라는 점이다. 이는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보고한 기존연구들(조록환(2003), 농림부(2004) 등)과 유사한 결과로, 농촌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즐기며 휴양하는 활동들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직접 몸을 움직여 모내기, 김매기 등의 농사(영농)활동 체험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자 계층별(성별, 연령대, 경험유무 등)로 체험활동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테마별 체험활동 선호도에 유의차를 보였으나, 그린투어리즘 경험 유무는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 성별에 따른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에 유의차를 보였다. 그 결과를

Table 1 대구·경북 체험마을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현황

테마	체험활동 종류 ()안은 체험마을의 수	종수
농산어촌 생활체험	고구마캐기(11), 산나물 채취(11), 사과따기(10), 감자캐기(7), 버섯채취(6), 모심기(5), 고추따기(5), 벼베기(5), 포도따기(5), 감따기(4), 옥수수따기(4), 수박따기(4), 딸기따기(3), 채소수확(3), 배따기(3), 토마토따기(2), 밤줍기(2), 서리하기(2), 송이캐기(1), 소달구지타기(1), 칠팔캐기(1), 씨앗뿌리기(1), 경운기타기(1), 더덕 캐기(1), 참외따기(1), 인삼캐기(1), 누에/양잠체험(1), 토끼몰이(1), 바다낚시(1), 미역채취(1), 배타기(1)	31
전통음식 체험	두부만들기(13), 인절미만들기(7), 메주쭈기(4), 꽃감만들기(4), 장담그기(3), 송편빚기(3), 떡만들기(3), 묵만들기(1), 한과만들기(1), 청국장만들기(1)	10
전통문화 체험	짚공예(6), 전래놀이(7), 도자기체험(5), 연날리기(4), 허수아비만들기(3), 다도체험(2), 전통예절(2), 쿼볼놀이(2), 달집태우기(2), 한지체험(2), 염색체험(2), 장승깎기(1), 한옥체험(1)	13
자연생태 체험	낚시/물고기잡이(13), 별자리관찰(5), 곤충채집(4), 야생화관찰(4), 반딧불이관찰(3), 꽃길걷기(2), 연 심기/캐기(1)	7
건강/레포츠 /기타	썰매타기(7), 자전거타기(4), 트래킹(3), 래프팅(2), 연꽃산책하기(1), 동굴황토체험(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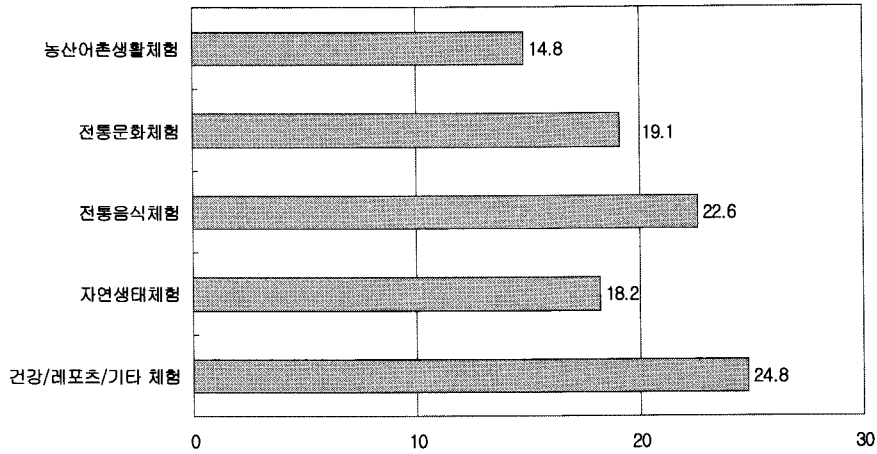


Figure 1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보면, 남자는 ‘건강/레포츠/기타체험’을 45.8%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농산어촌생활체험’, ‘자연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는 27.2%가 ‘전통음식체험’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레포츠/기타 체험’이 25.1%, ‘전통문화체험’이 17.5%, ‘자연생태체험’ 15.4%, ‘농산어촌생활체험’ 14.8%로 나타났다. 건강/레포츠/기타체험과 전통음식체험에서 특히 성별 선호도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다.(Figure 2)

나. 연령대에 따른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른 그린투어리즘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에 있어서도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10대는 5가지 체험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20대는 ‘건강/레포츠/기타체험’이 53.5%로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 결과를 보였다. 반면 40대와 50대는 24.1%와 31.9%로 ‘전통음식체험’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나, 연령대 계층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3)

3. 개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가. 개별 체험활동 선호도 자료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14개 개별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의 선호도에 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값이 0.858로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제거 시 신뢰도 값을 올려주는 변수, 즉 내적일관성 부족으로 제거가 추천되는 변수는 없었다.

Table 2 체험활동 선호도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의 알파	항 목 수
0.85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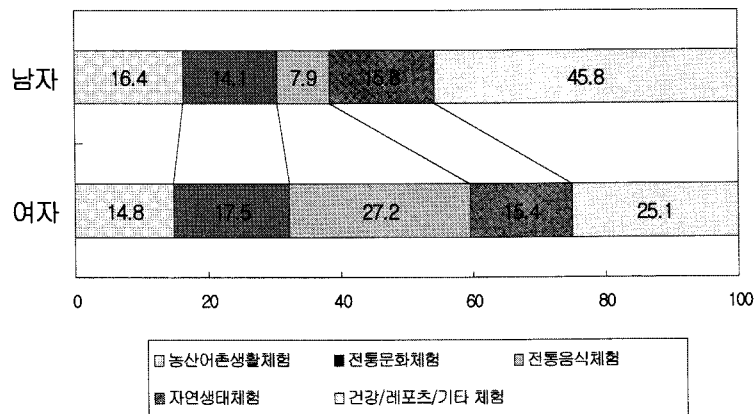


Figure 2. 성별에 따른 그린투어리즘 테마별 체험활동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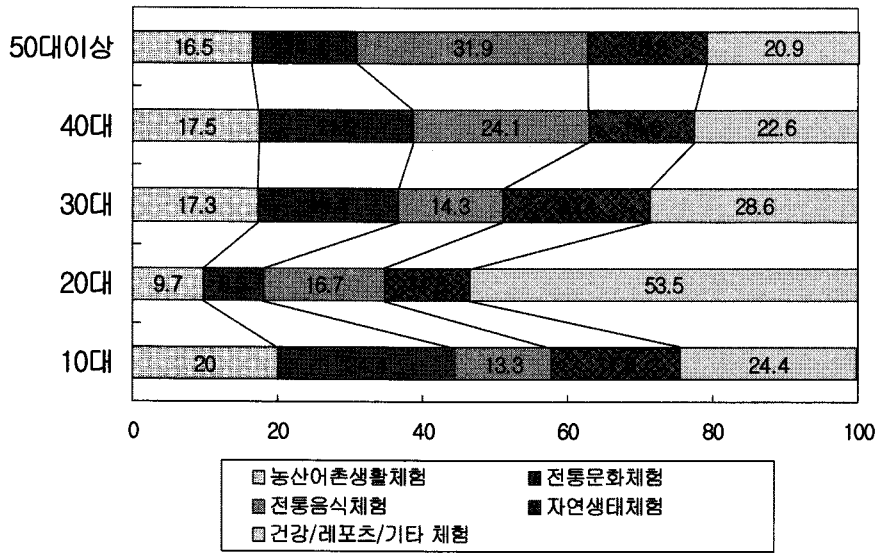


Figure 3 연령대에 따른 그린투어리즘 테마별 체험활동 선호도 (%).

나. 개별 체험활동 선호도 평균

그린투어리즘의 개별 체험활동별 선호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 Table 3이다. '건강 체험'이 4.02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전통음식 먹기'가 3.84로 나타났다. 이 역시 대도시인 대구 시민들이 건강과 '웰빙'에 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농촌생활체험'과 '전래놀이체험'이 각각 3.25 3.26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5 개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와 유사한 결과이다. 현재 대구·경북 체험마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들에 보다 이용자 위주의 수요에 부응하는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결과이다.

Table 3 개별 체험활동별 선호도 평균치

체험활동 종류	N	평균	표준편차
농촌생활체험	515	3.25	1.05
어촌생활체험	515	3.60	1.10
산촌생활체험	515	3.50	1.11
전통문화학습체험	515	3.59	1.14
전래놀이체험	514	3.26	1.14
전통농가생활체험	514	3.38	1.16
전통음식만들기	514	3.46	1.18
전통음식먹기	514	3.84	1.10
지역축제참여	514	3.53	1.13
자연생태관찰	515	3.68	1.19
자연생태학습	515	3.45	1.15
건강체험	515	4.02	1.07
레포츠체험	515	3.82	1.19
기타체험	515	3.72	1.15

김범수·이주희(1997)는 '농산촌 체재형 휴양에 적합한 이용활동'에 관한 설문결과, 도시민은 농촌마을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즐기며 산책한다(15.8%)거나, 조용히 여유롭게 지낸다(12.8%) 등 건강, 웰빙 관련활동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이다. 2001년 12월에 농촌생활연구소의 '인터넷 이용자의 그린투어리즘 요구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희망활동 부문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야외활동 및 자연 감상'이었고 이어, '향토음식/특산물 요리 즐기기', '농산물 수확체험'순으로 나타났다. 요구 성향을 보면 농촌의 자연자원과 농업관련 내용에 관한 관광 여가 활동, 예를 들면 숲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기, 조용히 쉬기, 밤하늘 별 보기, 자연 관찰, 농산물 축제, 관광지 산책, 자녀와 자연학습 등에 대한 요구정도가 대부분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상적인 모내기, 가축 기르기, 나무 심기, 곤충 채집 활동 등은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시인들은 자연과 함께 하는 활동, 휴양 휴식, 재미 있고 뜻있는 체험학습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힘이 드는 일상적인 농사체험이나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현재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을 보다 수요자 위주로 개선하려는 마케팅적 접근과 노력이 요구되는 결과로 사료된다.

다. 개별 체험활동 선호도 평균치 집단별 비교분석

그린투어리즘의 체험활동 선호도 평균치의 차이를 성별과 그린투어리즘 경험유무에 따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체험활동 선호도 평균치는 남자가

Table 4 성별과 경험유무, 연령대에 따른 개별 체험활동 선호도 비교분석

	성별	경험유무	연령대
농촌생활체험	-3.390(.001)*	1.648(.101)	2.378(.051)
어촌생활체험	1.827(.068)	2.640(.009)*	8.299(.000)*
산촌생활체험	-1.540(.124)	1.508(.133)	4.967(.001)*
전통문화체험	-4.766(.000)*	1.855(.065)	2.137(.075)
전래놀이체험	1.616(.107)	2.112(.036)*	8.338(.000)*
전통농가생활체험	-2.790(.006)*	1.620(.107)	2.013(.091)
전통음식만들기	-5.663(.000)*	1.885(.061)	2.391(.050)*
전통음식먹기	-1.731(.084)	2.681(.008)*	4.525(.001)*
지역(농특산물)축제참여	-3.29(.742)	1.908(.058)	.350(.844)
자연생태관찰	.298(.766)	3.040(.003)*	8.100(.000)*
자연생태학습	4.469(.000)*	1.075(.284)	6.519(.000)*
건강체험	-.854(.393)	.472(.638)	6.083(.000)*
레포츠체험	3.302(.001)*	4.297(.000)*	30.405(.000)*
기타체험	-3.793(.000)*	.624(.534)	3.905(.004)*

* t-test : t값(유의확률)(*p<0.05) * ANOVA : F값(유의확률)(*p<0.05)

‘레포츠체험’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건강 체험’, ‘자연생태학습체험’, ‘어촌생활체험’ 등이 각각 3.97, 3.76, 3.73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동적인 활동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역시 ‘건강 체험’이 4.04로 남자와 같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없었지만, ‘전통음식 먹기’, ‘기타체험’, ‘전통문화체험학습’ 등이 3.90, 3.86, 3.76으로 높게 나타나 남자보다는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전체 14개 체험활동의 절반 정도인 7개 체험활동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그린투어리즘 경험유무에 따른 체험활동 선호도 평균치는, 경험자가 ‘레포츠체험’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전통음식 먹기’, ‘건강 체험’, ‘자연생태관찰’ 등이 각각 4.08, 4.06, 3.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린투어리즘 비경험자는, ‘건강 체험’이 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통음식 먹기’, ‘레포츠체험’, ‘기타체험활동’ 등이 각각 3.78, 3.72, 3.70으로 높게 나타나 5개 활동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그린투어리즘 경험자나 비경험자의 선호하는 체험활동은, 성별에 비해 그 차이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그린투어리즘 경험유무에 따른 체험활동 선호도 t-검정의 t값과 자유도, 유의확률값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연령대(Figure 3)의 연령별 집단과 같은 5개 집단)에 따른 체험활동 선호도 평균치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체험활동에서 유의차를 보였다.(Table 4 참조) 대표적으로 유의차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어촌생활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어촌생활체험’은 50대가 2.99로 10-40대(3.62-3.98)보다 현저하게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고, ‘산촌생활체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전래문

화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전래놀이체험’은 40,50대(3.05, 2.81)보다 10-30대 젊은 층이 3.67-3.41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전통음식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전통음식 만들기’는 10대(3.08)를 제외한 20-50대 연령층이 높은 선호도(3.32-3.62)를 보여주고 있고, ‘전통음식먹기’의 선호도는 40,50대(3.71, 3.52)보다 10-30대(4.11-3.86)의 젊은 층이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네 번째,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중, ‘자연생태관찰’와 ‘자연생태학습’의 선호도 모두, 40,50대 연령층보다 10-30대 젊은 연령층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레포츠/기타 체험 프로그램 중, ‘건강체험’의 선호도는 10대(3.35)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높은 선호도(3.87-4.20)를 나타내고 있고, ‘레포츠체험’은 50대가 2.86으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반면, 20-30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선호도 평균치(4.37, 4.12)를 나타냈다. ‘기타체험’의 선호도 역시 50대(3.30)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3.74-3.88)를 보여주었다.

라. 개별 체험활동 선호도 요인분석

14개 체험활동 선호도 점수를 요인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Table 5 참조) 첫 번째 요인 집단으로는 ‘지역(농특산물)축제참여’, ‘전통음식 먹기’, ‘전통음식 만들기’, ‘기타 체험’, ‘건강 체험’ 이 하나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전체변량(total variance)의 19.27%를 설명하였는데, 이를 ‘전통·웰빙·건강 체험’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자연생태 학습’, ‘레포츠 체험’, ‘전래놀이체험’, ‘자연생태관찰’ 등이 전체변량의 18.51%를 설명하며 묶였는데, ‘자연 및 놀이 체험’이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 ‘산촌생활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농가생활체험’, ‘어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학습’

이 전체변량의 16.27%를 설명하며 묶여, ‘생활문화 체험’이라 명명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현재 농림부 ‘그린투어’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에는 그린투어리즘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크게 ‘농산어촌체험’,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자연생태활동체험’, ‘건강/레포츠/기타체험’ 등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 재분류가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엄서호·노영희(2001)가 양평군의 그린투어리즘 녹색체험 종류를 환경체험, 농사체험, 농촌문화체험, 농산물체험, 자연체험 등으로 분류하고, 녹색체험 수요를 그 요구정도에 따라 가족 중심의 자연체험형 집단, 친지/친구 중심의 친교휴양형 집단 및 단체 중심의 생태교육형 집단 등 3가지 유형의 표적시장에 맞는 녹색체험 상품의 개발을 제안한 바를 참조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체험활동 선호도라는 수요측면을 고려, ‘전통 웰빙 건강 체험’, ‘자연 및 놀이 체험’, ‘생활문화 체험’ 등의 3가지 범주로 유형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Table 5 체험활동 선호도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	요 인		
	1	2	3
지역(농특산물)축제참여	0.691	0.090	0.133
전통음식 먹기	0.681	0.241	0.118
전통음식 만들기	0.664	-0.130	0.433
기타체험	0.642	0.310	0.205
건강체험	0.606	0.269	0.106
자연생태학습	0.130	0.751	0.162
레포츠체험	0.273	0.704	-0.036
전래놀이체험	0.068	0.692	0.280
자연생태관찰	0.364	0.628	0.169
산촌생활체험	0.211	-0.085	0.747
농촌생활체험	0.127	0.233	0.631
전통농가생활체험	0.341	0.180	0.593
어촌생활체험	-0.026	0.412	0.562
전통문화체험학습	0.363	0.306	0.497
고유치(eigen value)	2.698	2.541	2.278
기여도(%)	19.27	18.15	16.27
누적기여도(%)	19.27	37.42	53.69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대구·경북 지역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한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구시민의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선호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대구·경북 지역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경북 지역 체험마을들에서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들은 공급자 위주의 농촌생활체험과 전통문화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인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레포츠체험’, ‘전통음식체험’, 등과 같은 농촌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향유하고 휴양하는 체험활동들에 높은 선호도를 보인 한편, ‘농산어촌생활체험’과 같이 직접 농업(영농)활동에 참가하는 체험활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성별로는 남성들이 건강/레포츠체험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들은 전통음식체험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압도적으로 건강/레포츠체험을 선택하였다.

2. 14가지 개별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체험’, ‘전통음식먹기’, ‘레포츠체험’ 등의 순으로 선호도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 ‘농촌생활체험’, ‘전래놀이체험’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 평균치를 보였다. 이는 요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과 ‘웰빙’ 추구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린투어리즘의 체험활동 선호도를 성별과 연령대, 그린투어리즘의 경험유무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남자는 ‘레포츠 체험’, ‘자연생태학습체험’과 같은 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여자는 ‘건강체험’, ‘전통음식먹기’ 등의 남자보다는 조금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체험활동 선호도는 ‘어촌생활 체험’은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하는 반면, ‘산촌생활체험’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래놀이체험’은 40,50대보다 10-30대 젊은 층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식 만들기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선호하였고, ‘전통음식먹기’의 선호도는 젊은 층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특히 ‘레포츠 체험’은 20-30대가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4. 14가지 개별 그린투어리즘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요인분석 한 결과,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전통·웰빙·건강 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두 번째 요인은, ‘자연 및 놀이 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세 번째 성분으로는, ‘생활문화 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들처럼 단순히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체험활동의 종류를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보다 심층적으로 체험활동 선호에 대한 성별, 연령별 등 계층간 비교를 시행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들보다 진전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영남지역 거점 도시인 대구시민의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에 대한 수요적 측면의 체험활동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체험마을들의 체험 프로그램들에 보다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 즉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적 측면의 체험활동 선호도를 조사분석한 연구로 일반적인 범용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인정된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과 이용자의 선호도와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표적시장에 부응하는 마케팅적 접근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주1) 5 가지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어촌생활체험'(농촌생활체험, 어촌생활체험, 산촌생활체험 등), '전통문화체험'(전통문화 체험학습, 전통문화놀이체험 등), '전통음식체험'(전통음식 만들기, 전통음식 먹기, 지역(농특산물)축제참여 등), '자연생태체험'(자연생태 관찰, 자연생태 학습 등), '건강/레포츠/체험'(건강체험, 레포츠체험, 기타체험 등)
- 주2) 14개 체험활동 프로그램별로 제시된 체험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농촌생활체험(벼 베기, 감자 캐기, 딸기 따기 등), 어촌생활체험(갯벌체험, 바다낚시, 해산물채취 등), 산촌생활체험(버섯채취, 산나물 채취, 숲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학습(전통예절교육,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등), 전래놀이체험(연 만들기/날리기, 쥐불놀이, 널뛰기 등), 전통농가생활체험(아궁이불때기, 장작패기, 지게지기 등), 전통음식 만들기(두부 만들기,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등), 전통음식 먹기(고구마 구워먹기, 쫄면먹기, 감자전 먹기 등), 지역(농특산물) 축제참여(인삼, 딸기, 마늘, 송이 축제 등), 자연생태관찰(숲 관찰, 반딧불이 관찰, 벌 관찰 등), 자연생태 학습(곤충채집, 야생화관찰, 물고기관찰 등), 건강체험(산림욕, 황토방체험, 황토길 걷기 등), 레포츠체험(레프팅, 눈썰매타기, 자전거하이킹 등), 기타체험(허브체험, 비누만들기, 동물 먹이주기 등)

참고문헌

- 강신겸, 2002, 마을단위 녹색관광개발의 추진과 과제, 농촌관광연구, 9(1), 118-137.
- 권용대, 홍중숙, 2003, 농촌 어메니타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의 경제성 분석, 농촌계획, 9(3), 17-23.
- 김범수, 이주희, 1997, 농산촌에 있어서 Green Tourism의 전개를 위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의식조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3), 183-199.
- 김상윤, 2001,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산림휴양연구, 5(2), 51-60.
- 김성일, 홍성권, 이태희, 2001, 컨조인트 선택모델을 통한 녹색관광 선택행동, 관광학연구, 25(1), 215-231.
- 김용근 외, 2001, 도시민 의식조사를 통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방안, 농촌관광연구, 8(2), 17-31.
- 농림부, 2004,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도 조사 보고서, 28.
- 농촌생활연구소, 2003a, 녹색관광 실태 및 선호도 조사, 158.
- 농촌생활연구소, 2003b,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녹색관광자원 이용연구, 465.
- 류선무 외, 2001, 그린투어리즘의 개념에 대한 고찰, 농촌관광연구, 8(1), 1-15.
- 송문갑, 2004, 그린투어리즘 구축을 위한 생산자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3), 49-61.
- 송재호, 이성은, 2005,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평가를 위한 구조모델 구축과 적용, 관광연구저널, 19(1), 81-97.
- 엄서호, 노영희, 2001, 그린투어리즘 실현을 위한 체험상품 개발방안, 농촌관광연구, 8(2), 118-129.
- 엄봉훈, 2006,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현황 분석, 농촌계획, 12(4), 25-133.
- 오승현, 엄봉훈, 2007,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대구 시민의 태도 및 의식조사 연구, 농촌계획, 13(4), 79-86.
- 유승우 외, 2003, 농촌전통문화를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10(1), 157-175.
- 조록환 외, 2003, 인터넷 이용자의 녹색관광 요구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157-159.
- 조용기, 1999, 녹색관광의 태도와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11, 73-85.
- 함석중, 김숙희, 2005, 수도권 주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태도 연구, 관광연구저널, 19(3), 147-162.
- 홍성권, 김성일, 2002, 녹색관광의 참여의도에 관여하는 영향인자와 제한요소 규명, 한국조경학회지, 30(1), 18-28.

* 접수일 : 2008년 10월 31일

■ 3인 익명 심사필